



어도비, 어도비 애널리틱스로 BGF 리테일 고객 경험 혁신 지원

서울, 2020년 6월 29일 - 어도비는 편의점 브랜드 CU 운영사인 BGF 리테일이 [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\(Adobe Experience Cloud\)](#)의 [어도비 애널리틱스\(Adobe Analytics\)](#)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고객 경험을 향상하는 O2O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.

최근 디지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소비 형태의 변화에 맞춰 모든 고객 접점에서 전에 없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전 유통업계가 직면한 과제이다. 그러나 심화하는 경쟁 속에서 디지털 채널의 구축만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실현시키기 어렵다. 국내 편의점 선두기업인 BGF 리테일도 예외가 아니다. 모바일 앱 ‘포켓 CU’ 론칭 후 확대된 고객 여정에 맞춰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BGF 리테일은 효과가 검증된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도입했다.

유통 업체는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고객 행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,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 도출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. BGF 리테일도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활용해, 모바일 앱에서의 고객 행동 정보를 미리 설정한 맞춤형 지표에 따라 수집, 분석하고 있다. 또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어 빠른 의사결정도 가능해졌다. 뿐만 아니라 팀 간 협업 시에도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리포트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업무 시너지를 높였다.

최지영 BGF 리테일 CRM 팀 팀장은 “어도비 애널리틱스의 활용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 행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, 더 나은 고객 경험 제공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까지 모색할 수 있다”고 전했다.

현재 BGF 리테일은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체계적인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을 활용해 마케팅 담당자가 고객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고객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며 역량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.

최지영 팀장은 “디지털 기술 덕에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, 원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한다는 편의점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”며 “어도비 애널리틱스를 통해 전 고객 여정에 걸쳐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”고 밝혔다. 또 “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패턴과 높아지는 고객 기대를 충족하는 진일보한 유통 모델로의 여정에 어도비가 계속 함께하기를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어도비에 대해

어도비는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. 자세한 정보는 [어도비 홈페이지](#)에서 찾을 수 있다. 어도비코리아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어도비코리아의 [공식 페이스북](#)과 [뉴스룸](#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###